

온세상 사람들에게 알림:

- 간단명료하게 설명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

오늘날 이 세상에는 각기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어서, 각 종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각자 다른 예배 의식을 위한 교회, 절, 회교 사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다양성 때문에 정말 어떤 종교를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위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수많은 종교들에 둘러싸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들 중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혼돈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은 이러한 종교들이 제각기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단호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이유야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진리를 향한 바른 길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가 공통적으로 가진 기본 사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이 세상과 여기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였으며, 실제로 우주 그 자체를 창조한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 가지 종교는 일신교라고 불리우며, 이러한 절대적 유일신 사상으로 인하여 다른 신앙체계들과 구별됩니다. 여타의 종교들은 유일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각기 다른 종류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다양한 신들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다신종교의 예를 들면 인도의 힌두교가 있는데, 이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명상법들이 유래하였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는 자연의 힘을 숭배하는 위카(Wicca)나 죽은 조상들을 숭배하는 신도(神道) 같은 것도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경우는 보통사람 하나를 신격화시켜 그를 모시는 사원을 짓고 그의 상(像)을 만들며, 그 사람의 신조와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기도 합니다. 불교가 바로 그런 경우이지요. 어떤 신앙체계에서는 심지어 우리 인간이 곧 신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우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자구 능력에 의존하면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자기 스스로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떤 초월적 존재의 개입 없이도 우리 자신의

운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더구나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산테리아(Santeria) 같은 종교는 사탄과 사악한 어둠의 세력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유한 나라 사람들은 권력과 돈을 숭배하며 물질만능주의를 신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 중에는 그 어떤 신이나 영적 존재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영적인 세계의 존재 그 자체를 전적으로 부정하면서, 우리의 현생은 그저 현상 그대로일 뿐이며,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교와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 사이에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차이점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종교가 절대적인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권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심하고 따라도 좋은 종교임을 뜻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여타의 모든 종교와 다른 점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란 우리에게 모든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사라지고 없는 더 나은 세상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새 생명을 아무런 댓가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분입니다. 이슬람교나 불교나 힌두교 같은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구세주를 믿지 않더라도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새 세상에서의 멋진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구원은 선한 일을 행하거나, 여러 번 되풀이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완성하거나, 또는 많은 계율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우리의 선한 공로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역사적으로 기독교와 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기독교의 근본적인 믿음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앙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건 적건 모두 다 부족하고, 늘 실수를 범합니다.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잘못이 곧 오늘날 이 세상에 이렇게도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또 무엇이든 '나'에게 좋은 것이라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라 여깁니다. 바로 이러한 좋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말미암아 전쟁, 살인, 성폭행, 불법적인 낙태, 도둑질,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압제 등 여러 가지 범죄들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마음가짐은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직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진실을 직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릇된 우월감 이나 이기심 또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사악한 마음 같은 것들로부터 비롯하는데, 그런 행동들은 다른 이들을 해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불행하게 느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지키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을 위해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것은 책임감이 있는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였을 때 벌을 주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성경말씀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에 대한 징계에 관해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성경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로마서 6:23 상반, 한글킹제임스)

"...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36하반, 한글킹제임스)

"또 너희는 몸은 죽일 수 있으나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28, 한글킹제임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케 하시는 불이심이라." (히브리서 10:31, 12:29, 한글킹제임스)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 20:15, 한글킹제임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런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 하는 자들과 마술 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8, 한글킹제임스)

그것은 참으로 비싼 댓가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완악함과 불신을 고집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택하는 것입니다. 간혹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한 댓가를 그렇게 메기신다고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안다면 더욱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얼마나 심한 잘못을 저질렀든지, 우리가 얼마나 심하게 불순종하였든지 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는 것은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불순종한 자녀를 결국에는 사랑으로 다시 감싸 안게 되듯이, 하나님 또한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진노하고만 계시지는 않으며, 우리를 언제까지나 버려두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우리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별문제가겠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두고 계시며, 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시로 썼듯이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시편 103:13-14, 한글킹제임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참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긍휼히 여기심이 사라지지 아니 하였음이니이다. 그것들이 매일 아침 새로워지니 주의 신실하심이 크나이다." (예레미야애가 3:22-23, 한글킹제임스)

그러므로 여러분도 방금 읽으셨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심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음으로써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애써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방법으로써 그분이 하신 일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받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우리 형제나 자매나 친구 중의 한 사람이 그 벌을 대신 받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잘못인데도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 보다 남을 앞세우는 것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성경은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한글킹제임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지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온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벌을 받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속죄받을 길을 열어 주셨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아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자이심을 알아 본 순간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입니다.

"...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요한복음 1:29 하반, 한글킹제임스)

첫째, 왜 예수님은 그렇게도 끔찍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요? 그런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었을까요? 한마디로 대답하면 '없었다'입니다. 구약성서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의 죄는 흠없는 염소나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속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때문에 구약성서에는 짐승을 희생시키는 의식에 관한 기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구세주)에게서 나타날 더 나은 일의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쓴 글에

설명되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한 새 언약의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로써 그는 역사상 최후의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일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마태복음 26:28, 한글킹제임스)

"이런 연유로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것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영원한 유업의 그 약속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15, 22, 한글킹제임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히브리서 12:24, 한글킹제임스)

예수님은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정죄함을 받아들였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았으며, 정작 우리가 받아야 할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은 선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불모로 잡힌 바 되었으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통해서 그 몸값을 치루었습니다. 마가와 누가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마가복음 10:45, 한글킹제임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짓밟힌 자들을 해방시켜 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누가복음 4:18-19, 한글킹제임스)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너희는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기 위하여 실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 자신을 우선적으로 돌보지 않았습시다. 그는 자신의 안녕은 돌아보지 않고 단지 우리들의 복락, 즉 우리가 장차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릴 복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며,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하늘나라에서의 자신의 위치나 이 땅에서의 자신의 목숨 같은 것에 대한 생각을 잠시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는 것을 탈취라 생각지 아니하셨으나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느니라.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5-11, 한글킹제임스)

예수님의 생애는 자기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우선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는 그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제물로서 기꺼이 내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는 감람산에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 아버지시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누가복음 22:42, 한글킹제임스)

그리고는 바로 그날 밤에 그는 죄악에 가득찬 자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그 길로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토록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 행동은 정말 사랑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 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음이라.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 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3:16, 한글킹제임스)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소위 현자, 성자, 철학자 그리고 스승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져 갔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지혜로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그들의 가르침과 사랑의 실천, 또 그들이 보여 준 인내심과 관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의욕을 불어일으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그 어떤 한 사람도, 예수님과 같은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인간을 위해 궁극적인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았으며, 그들 중 그 누구도 영생을 위한 길을 연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었고, 또 그는 정말 그 일을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들에게 그 이전에 왔던 거짓 선지자들과 분명히 그의 뒤에 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 온 자는 다 도둑들이요 강도들이라. 양들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8, 한글킹제임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24, 한글킹제임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으며,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그 자신이 실로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하반절, 한글킹제임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그들을 나의 손에서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10:28, 한글킹제임스)

얼마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실임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12, 한글킹제임스)

"...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31, 한글킹제임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야말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부터 비롯하였으며, 예수 없이는 우리의 이러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2, 한글킹제임스)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하지도 못하고 완전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명백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과 영생을 받기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과 영생을 내려 주신 것은 오직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한글킹제임스)

사도 야고보 역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 주신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야고보서 1:17, 한글킹제임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베푸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말 솔직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히 선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의 이기심과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본질적인 죄성을 타고난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악한 것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8, 한글킹제임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디도서 3:5전반, 한글킹제임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으로 변화되기 이전의 사도 바울은 - 그 때는 이름을 사울이라 불렀습니다 -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던 매우 열성적이고 독선적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 자신의 소위 의로움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데 대한 충실함으로 인하여 천국행 티켓은 떼어 놓 당상이라고 자신만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은 최소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대면한 숙명적인 날까지는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마음을 겸허하게 낮추도록 해 주셨고, 그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실로 비참한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자신을 돌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 낼 것인가?" (로마서 7:24, 한글킹제임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치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15:9, 한글킹제임스)

하나님이 잠시 사울의 자만심을 어루만져 주신 후에 이렇게 엄청난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다니! 불행히도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들은 자아가 강하고 자신들의 견해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설정한 표준이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일이 매우 자주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심인 사람들은 가끔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낮다고 생각하며, 남보다 조금 더 거룩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또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의로움이 아니라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며, 성경은 이런 것을 좋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죄악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이사야 64:6, 한글킹제임스)

더욱이 솔로몬왕은 그렇게 자기 생각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차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몇 가지 현명한 충고를 하였습니다. 잠언서에 말하기를:

"교만은 멸망 앞에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 앞에 있느니라." (잠언 16:18, 한글킹제임스)

잠깐 동안 당신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당신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당신이 어리든 아니면 나이가 들었든, 진심으로 당신 자신이 항상 모범적인 삶을 이어 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아마 당신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잔인한 말을 한 적이 있거나, 또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스스로 부끄러워할 만한 일들-만약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 몹시 당황했을 만한 일들-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에 의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이며, 그것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모든 계명 중의 첫째는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라. 그러므로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 (마가복음 12:29하반-31, 한글킹제임스)

당신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행을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숨길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에게까지 감출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 속 깊이 숨어들어 있는 악한 생각까지도 알고 계심이 분명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기록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예레미야 17:9, 한글킹제임스)

사실 성경의 첫째 권으로 돌아가 보면, 노아의 대홍수 직전에 하나님은 인간의 사악한 본성을 자세히 보셨고, 그런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 스스로 마음이 언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소멸시키기로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길만이 인간의 악행으로 더러워진 이 세상을 정화할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세상에 창대해짐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구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으니, 그 일이 그의 마음을 비통케 하였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망시키리니, 즉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라.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후회함이라.' 하시니라." (창세기 6:5-7, 한글킹제임스)

대홍수가 일어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이 사악함을 다시 확인하시고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21, 한글킹제임스)

이사야 선지자도 우리 인간의 타락함과 죄 중에 있음과 구원이 필요함을 통렬히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관한 예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 53:6, 한글킹제임스)

다윗왕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든 후에는 불순종하는 인간들의 타락상을 인식하고, 시편 14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굽어보시어 깨닫는 자가 있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시나 그들은 모두 다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시편 14:1-3, 한글킹제임스)

신약으로 넘어와서 한 특별한 일화를 보면, 예수와 그의 추종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 의롭다고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소로운 비난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응대하였을까요? 다음 성경 말씀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5:17-20, 한글킹제임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게 된 후 여러 해가 지나서 그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에 다윗왕이 쓴 시편 14편의 일부분을 풀이하여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로마서 3:10, 한글킹제임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로마서 3:23, 한글킹제임스)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되풀이하여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악이 깃들어 있으며, 우리가 타락한 피조물이란 것을 말해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추려는 노력은 전적으로 소용이 없는 일임이 명백합니다. 서양의 옛말에, '그대가 아무리 숨으려 해도 그대의 죄가 그대를 찾아낼 것임을 명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가리워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누가복음 12:2, 한글킹제임스)

"만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할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2:25, 한글킹제임스)

사도바울도 그의 편지들에서 우리가 장차 주님과 만날 약속이 되어 있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가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5:10, 한글킹제임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히브리서 9:27, 한글킹제임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상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 각자에게 결산의 날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도대체 죄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난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아왔는데',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난 은행을 털 적이 없다구', '난 절대로 성폭행 같은 건 한 적이 없어', '나는 정말 왜 내가 죄인인지 알 수가 없어' 라거나 '내가 왜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 또는 '난 착한 사람이야'라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말에 대해서 먼저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귀하는 정말 스스로 주장하는 것만큼 좋은 사람일까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아가 '선한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존경에 찬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했음을 알게 되면 아마 놀라실 것입니다.

"... 어찌하여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나 네가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17하반, 한글킹제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뿐임을 알려 주셨고, 그리고는 주님이 아시는바 그 사람이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는 일 하나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자기 나름대로 무슨 좋은 일을 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잘 조직된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도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으니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도와 드려야 한다고 잘 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돌려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의 희생만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런 생각은 마치 갈보리산에서 완성된 구원사업에 우리 인간의 노력을 더하여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고 하셨으면 그 일은 정말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분의 희생 위에 덧붙여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것만이 전부입니다.

다시 죄의 정의로 돌아가서, 사도요한은 첫번째 편지에서 죄에 대해 아주 짧게 딱 잘라서 정의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요한일서 3:4, 한글킹제임스)

'범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신약에서 그 말은 그리스 말의 '법 바깥에서 살다' 또는 '법을 위반하다'를 뜻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는데, 그것은 '법을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말한 법이란 정확히 무슨 법을 말할까요? 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인간의 삶을 경영하기 위하여 세상에 알려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법 즉 구약성서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말한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민족의 삶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다 말해 주듯이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듯이, 구약성경에는 문자 그대로 수백 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 보다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내'가 최우선이고, 나 자신의 생존이란 것이 오늘날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에베소서 5:29전반, 한글킹제임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에 멋진 곳이 될 것입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실상과는 먼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이 세상에 사랑이 없는 것으로

특징지워지리라 하셨고, 바울 사도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두 성구들을 보십시오.

"불법이 성행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태복음 24:12, 한글킹제임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궁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후서 3:2, 한글킹제임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성경적 율법 중 으뜸가는 것은 오직 사랑 그것이며, 모든 다른 율법들은 그 안에 포함됩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최상의 법'이라 표현하였습니다. 다음 성구를 보십시오.

"너희가 정녕 성경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야고보서 2:8, 한글킹제임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왕을 기쁘시게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최상의 법 즉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오는 어떤 편의나 이익을 얻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만일 율법의 모든 항목을 다 지키더라도 그 중 단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 같은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2:10, 한글킹제임스)

율법을 모두 지키려는 것은 무익한 시도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려는 노력은 허사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완전히 선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가 다 율법을 어겼으며, 그로 인하여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피해 나갈 길은 전혀 없습니다.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흥정할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선고된 대로 유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게 된 대로,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다 잃지는 않았습니니다. 이 곤경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면제받을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구름처럼 가려서 그 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죄의 가장자리에 희망의 빛 테두리가 보입니다. 죄를 범하고, 책망을 당하고, 판결과 처벌을 받는 것이 이 이야기의 끝-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몰라도-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탈출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7, 한글킹제임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기적이고 사악한 행동으로 인하여 이미 정죄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세주임이 명백하며, 예수가 바로 그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사랑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5:6, 한글킹제임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 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12-13, 한글킹제임스)

그러므로, 아시다시피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고통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도 바울은 몇 줄 아래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에베소서 2:19, 한글킹제임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시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멋대로인 그분의 자녀들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처럼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첫머리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시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요한복음 1:12, 한글킹제임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기만 함으로써, 또 우리의 죄를 참회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재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용서와 재회는 죽은 후의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당장 이 세상에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려고 작정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은 죄들을 장부에서 깨끗이 지워 없애 버릴 수가 있으시며, 그분은 우리가 그 아들의 희생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 지은 죄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 없앨 능력이 있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을 해 달라고 간청하고 계십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2,500년 전에 다음과 같이 썼듯이 말입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주가 말하노니,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18, 한글킹제임스)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에 충분할만큼은 순전할 수가 없고, 의로울 수도 없고, 선행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매번 목표에 조금씩 못 미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표준을 충족시킬만큼 완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그야말로 희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야 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다시 들어 봅시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1, 한글킹제임스)

앞서 이사야서로부터 인용한 성구에서 보듯이, 우리의 죄는 깨끗이 씻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어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신다면 말씀드리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개의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시며, 또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정하신 계약의 조건을 당신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셔야 합니다. 먼저 당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자각하셔야 하며, 그리고는 그 죄가 어떤 것이든 스스로 참회하는 마음이 되셔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당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신다면 당신은 용서도 받고 또한 영원한 생명도 얻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올바른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래 전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후서 3:9, 한글킹제임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중의 누군가가 멸망한다면 그것은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참회하여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게 되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시대에 그 위대한 해방자(모세)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르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민수기 23:19, 한글킹제임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과 맺은 언약 중 각각 맡으신 부분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선하시며, 믿을 만합니다. 그 말씀들에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 있으며, 또 그 말씀들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축복의 약속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인간으로서의 자기 목숨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즉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땅에서 들리우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오리라." (요한복음 12:32, 한글킹제임스)

'모든 사람'이란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모두가 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현재 어떤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자신이 무교임을 자처하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당신은 완전히 버려진, 희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에게 지워진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자기의 몫을 다한 것이지요. 이제 당신 자신의 할 바를 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그분의 자녀 중 하나라면 당신은 그 사실을 알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타고 당신의 마음을 향해 부르는 목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27, 한글킹제임스)

사도바울 또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택해지고 그 운명이 예정되었으며, 우리 주님은 각 사람들 중 누가 그

분이 택한 사람인지 다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의 성경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는 복되시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 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1:3-5, 10-11, 한글킹제임스)

"그러나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고 이러한 봉인이 있으니, 곧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시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이라." (디모데후서 2:19, 한글킹제임스)

만일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당신의 마음을 끌어 당기는 것을 느끼신다면, 만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계시다면, 나는 당신을 지금 당장 그렇게 하시도록 권유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다음날로 미루는 것은 전혀 권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보다도 당신에게는 그만큼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우리는 다 늙었다. 우리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회개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자신이 구원과 영생을 확신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고린도후서 6:2, 한글킹제임스)

야고보 사도는 인생의 덧없음을 말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14, 한글킹제임스)

당신의 미래가 불분명한 것을 고려한다면, 당신쪽에서 오늘, 아니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요? 만일 마음의 준비는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알지 못하시겠으면 제가 안내해 드리는 대로 짚막한 기도를 해 보십시오. 다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기도는 어떤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생명이 없는 종교적 의례로서 여러 번 되풀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마음에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또는 유사한 기도를 통하여 당신은 자신이 죄 가운데 있음을 시인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구원자이심을 인정한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과 받아들임의 문제임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 그 자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아 들인다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매체 또는 그 전달하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 기도문 자체가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제가 이 글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당신 자신의 진심어린 믿음 그 자체입니다. 아마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고 싶으시겠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는 제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것을 압니다. 저는 제가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으며, 그분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제발 바라옵건데 아드님의 희생을 통하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제게 영생을 허락하시옵소서. 바라옵건데 저의 삶을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이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일생 동안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보시기에 기뻐하실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제가 하고자 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그들도 저와 같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소서. 저의 기도를 들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진실된 마음으로 이 기도나 아니면 비슷한 기도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당신의 삶에 임하시었고, 당신은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당신의 기록판은 그 어린 양(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기었고, 이제 당신은 백지상태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 봅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17, 한글킹제임스)

예수 자신이 이 새로운 영적 탄생 즉 거듭남에 대해서 말해 주신 게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체 높은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종교적 견해를 물으러 찾아왔습니다. 그 대화 중에 주님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3-7, 한글킹제임스)

당신이 방금 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 당신의 영은 거듭났고,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머지않아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왜냐 하면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슨 우레 같은 박수를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는 무슨 대단한 감정의 격동 같은 것을 느끼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방금 요청하신 모든 것은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분은 앞으로 우리가 알게 될 어떤 사람보다도 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크게 기뻐하셔야만 합니다. 왜냐 하면 당신은 방금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 될 권세를 받아 그분께 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늘의 천사들이 당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아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아흔 아홉 명의 의인들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의 죄인을 더 기뻐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있느니라." (누가복음 15:7,10, 한글킹제임스)

하나님은 진실로 당신이 새 생명을 얻어 그분과 함께 하시게 된 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 세운 믿음 생활을 돕기 위하여, 우리는 당신이 지금 즉시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 신자로서는 먼저 4복음서들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삶, 그분의 가르침, 죽음, 그리고 부활 등에 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저희들이 구축해 놓은 웹사이트(endtimeprophecy.net)와 핫라인서버(Armageddon, 202.128.69.135)에 올려져 있는 글들을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부분의 글들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씌어져 있습니다. 이 글들은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많은 의문들을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건데, 당신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하시고 그것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하실 때에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글에 인용된 모든 성구는 한글킹제임스성경으로 부터 인용되었습니다. (이 글의 영어 원문이 King James Version, KJV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번역본을 택했습니다.)

저희들에게 연락을 취하시려면:

전자우편: webmaster@endtimeprophecy.net

핫라인: 202.128.69.135

웹브라우저: <http://www.endtimeprophecy.net>

- 끝 -